

학교 우유 급식

서울북한산국민학교

양호교사 조 세 루

해방 후 미군 군정하에서의 일이다. 모 여중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한다. 급수 탱크 안에 우유를 넣어두고 자유로이 틀어서 마실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지만 아무도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허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성장과 영양상태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우유가 아동들의 식생활에서 결핍되기 쉬운 모든 영양소들을 전부 보충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곡류와 야채류에 편중되기 쉬운 우리네 식사에서 동물성 단백질, 비타민B₂, 칼슘등의 영양소를 우유로부터 많은 양을 공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윈스턴 처칠경은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는 우유를 먹여 두는 일이다.”라고 했던 것 처럼 자라나는 아동들의 발육에 빼어놓을 수 없는 필수 식품임은 누구나가 잘 알 수 있으리라. 학교 우유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의 심신의 발달을 돕고 동시에 교사와 아동, 아동들 상호간의 친화감을 조성한다. 언제나 일정한 시간에 우유급식을 함으로써 아동들의 간식과 좋은 식습관의 형성에 크게 도움을 준다. 아동들의 몸에만 좋은 식습관은 가정을 통하여 아동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튼튼한 체력으로 훌륭한 사회생활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미 성장이 다 끝난 성인보다도 지금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우유를 공급해 주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든지 큰 뜻이 있는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유생산량이 서구의 여러나라에 비하면 양은 절대 부족하지만 우선 어른들 보다는 신체적인 발달이 가장 활발한 아동들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우유급식에 있어서 취약지구에 위치한 본교의 지역적 특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경제적인 여건이다. 비교적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노동과 상업을 주로

한다. 아동들 자신은 다른 아동들이 우유 먹는 것을 보면 먹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아 우유를 먹지 못하는 아동들이 대다수이다. 학부모 자신도 우유를 사치스럽게 여기고 넉넉한 집에서나 음료수 정도로 마시거나 우유를 먹으면 설사등 탈이 나는걸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비근한 실례로 학교 근처의 상점의 말을 들어보면 일반 시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우유가 잘 팔리지 않아 갖다 놓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한다. 둘째로는, 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 어느 부모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마찬가지로 이겠으나 워낙 바쁜 일과속에서 자연히 자식에 대한 성의가 적어져서 학교일에 무관심 해지기 쉽다.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을 매월 2번에 걸쳐서 시작할때마다 가정통신을 내보내고 있으나 가정에서 잘 읽어보는 경우도 적고 아동 개인으로 보면 적은 돈이나 한가정에 2~3명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무리가 되며 아동들 스스로도 학부모들께 보이지 않는 때도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우유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우유가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위생관념이 부족하다. 저학년의 경우 지금까지 이를 한번도 닦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기 일쑤고 식사시간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관념이 적다. 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않고 다니고 몸을 씻지 않아 냄새가 나는일도 있다. 넷째로는, 본교는 12학급의 소규모의 학교로서 학생수는 700여명이다. 교통이 우선 불편하고 신청자도 적어서 대리점에서 하기를 꺼려 했는데 올 가을 부터 매일유업 공장에서 직접 배달이 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본교처럼 취

약지구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곳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 한다. 처음 우유급식을 실시 할 때는 냉장시설이 미비하여 상하기 쉬운 계절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고 교직원들 자신도 아동들의 우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굳이 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유의 영양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각반 교실에서 주전자안의 더운물에 팩 우유를 데워서 나누어 주고는 있으나 영하3℃이하로 내려가야만 난로를 피우기 때문에 추워서 우유수요가 더욱 떨어진다. 학교생활의 어느면이나 전부 중요하겠지만 아동들의 건강증진이 밀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의 장단점을 보완해가며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우선 아동들에게 보건분야에 관한 지식을 높이고 아동들 스스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들의 건강을 일선에서 가장 쉽게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아동간의 삼위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협조하여야 겠다. 또 교직원에게는 직원연수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우유급식의 중요함을 느끼게 하여 아동들에게 좀더 실생활에 가까운 산교육이 되도록 하게 하고 학부모에게도 어머니교실을 활용해서 우유에 관한 많은지식을 갖춘 분을 연사로 초빙하여 보건교육을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우유가 성장하는데 필요함을 인식하여 우유급식에 협조함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는 일임을 알게 한다. 특히 극빈한 아동에게는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여 보

다 많은 아동에게 혜택을 주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여 아동들의 체력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학교에 냉장시설까지 갖추어 당일 우유를 공급하여 안심하고 급식을 하고 있다. 다만 우유를 담은 팩의 접착면이 잘 뜯기지 않아서 아동들이 더러운 손으로 억지로 뜯음으로써 마시는 부분이 더러워져서 비위생적으로 된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빨대를 사용할 때는 180ml 전량을 쉽게 마실수 있으나 빨대없이 마실때는 약간씩 남겨져 있다. 우유 담은 박스도 간혹 흠이 묻어 있고 검은 때가 군데군데 보이는 것도 있어 깨끗이 씻겨져서 보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취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위낙 많고 여러 곳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처리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과거에는 우유급식을 실시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 같다. 우유급식중에 아동들의 인식도 제법 높아져 고학년의 경우 날짜가 찍힌것을 확인하고 마시며 지나간 날짜와 확실하게 찍히지 않는 것은 담임교사를 통하여 양호실로 보내진 후 괜찮다는 말을 들

고야 마시는 경우가 많아졌다. 본교는 급식 아동중에 결석생이 생길 경우 양호실의 냉장고에 보관되었다가 그 다음날 전하여 주지만 모 국민학교에서는 급식아동이 많아서 1~2명씩 결석아동이 급식생 중 있어서 냉장고에 일일이 보관하기도 어렵고 우유는 오래 보관 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각반에서 3~4명 정도의 생활이 어려운 아동을 선정하여 결석한 아동의 우유를 돌아가면서 마신다고 한다. 그 애기를 들으며 급식아동이 많은 학교에서는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아동을 도와주는 것도 되고 아동들 스스로도 자기 차례를 알아 결석생이 생기면 담임교사가 지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져간다고 한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안에서 건강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겠다. 또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아동들 스스로 건강유지 증진에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나 양호실을 이용하여 좀더 많은 아동이 보건생활에 참여하여야 겠다. 이런 모든 면에서 학교 우유급식이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아동들의 건강활동에 큰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

<토막지식>

☆ 북미 유럽서 유전자 조직으로 토마토와 감자 교배연구

유전자 조작 기술로 개발한 새로운 변종개발량 씨앗이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곧 생산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국제식물연구소가 발표했다.

국제식물연구소(IPRI)는 다수확, 고영양가이며, 또 전염병에 강한 밀, 보리, 옥수수 등 각종 농산물의 우수한 종자를 개발-생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와 공동으로 종자를 개발, 판매키

로 한 프랑스 농산물 회사의 러크사장은 유전자공학의 개발은 현대농업분야에서 식량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비료의 소비를 줄이는데 공헌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 캔자스주 맨해턴시에 있는 발전유전과학회사는 세포의 융합 및 재생방법으로 토마토와 감자를 교배해서 망속 뿌리엔 감자가 달리고 망위줄기엔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는 토마토, 감자를 개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